

A promotional banner for BTCC. On the left is the BTCC logo. In the center, the text "신규 유저 한정" (New User Only) is enclosed in a white box with a speech bubble effect. Below this, it says "BTCC에 가입 및 입금하고 최대 17,500 USDT를 받으세요!" (Join and deposit to receive up to 17,500 USDT!) and "친구 초대 시 더 많은 리베이트 획득 가능" (Get even more rebates when you invite friends!). On the right, there's an illustration of a person standing next to a large gift box with a ribbon, and another person is visible in the background. A yellow button with the text "지금 가입" (Join Now) is at the bottom right.

BTCC “신규 유저 한정”
BTCC에 가입 및 입금하고 최대 17,500 USDT를 받으세요!
친구 초대 시 더 많은 리베이트 획득 가능
지금 가입

‘오픈씨’에 맞붙 놓는 ‘블러’...NFT 시장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원문: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blur-against-open-sea-can-it-win-the-nft-market-war>

글로벌 대체불가능토큰(NFT) 마켓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체불가토큰(NFT) 마켓 블러가 출시된 지 네 달 만에 거래량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그간 압도적인 점유율로 시장을 지배하던 NFT 마켓 ‘오픈씨’가 블러(Blur)의 등장에 휘청이는 모습이다.

다만 블러가 거래량을 늘리면서 NFT 시세 거품을 유도했을 뿐 아니라, 오픈씨와 경쟁 구도를 형성함에 따라 NFT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 비중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들 거래소는 NFT 작품과 거래 점유율 확보를 위해 수수료 무료, 독점 리스팅 등 강수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블러는 어떻게 오픈씨를 위협할까요? 오픈씨의 절대적인 지배력을 깨고 NFT 거래소 1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블러(Blur)의 놀라운 성장은 어떻게?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로 인해 NFT 애그리게이터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NFT 애그리게이터는 모든 거래소에 상장된 NFT를 통합하는 플랫폼으로, 투자자는 애그리게이터만 통해 모든 주류 플랫폼의 NFT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NFT 거래 플랫폼으로 출발한 블러는 다양한 기능과 이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블러의 애그리게이터 기능을 통해 다양한 NFT 마켓의 NFT를 한번에 볼 수 있게 했다. 또 NFT의 가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 분석 기능도 제공한다. 오픈씨보다 훨씬 고도화된 서비스로 인기를 끈 것이다.

아울러 블러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블러\(BLUR\) 에어드랍 이벤트](#)도 NFT 작가와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게다가 수수료를 2.5%나 받는 오픈씨와 달리 블러는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

위의 모든 것은 블러의 자체 장점일 뿐이지만 블러를 폭발적으로 만드는 것은 마케팅입니다. 출시 후 블러는 3 라운드의 에어드랍을 진행했다. 플랫폼 트래픽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오픈씨를 능가하는 추세가 있는 것을 보고 NFT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도 블러의 토큰을 선호한다.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에어드랍에 대해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점수를 받는 조건 중 하나는 플랫폼에서 적극적으로 상장 및 거래에 참여하여 일일 거래량은 오픈씨와 격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BTCC 가입하고 3500USDT 받으세요](#)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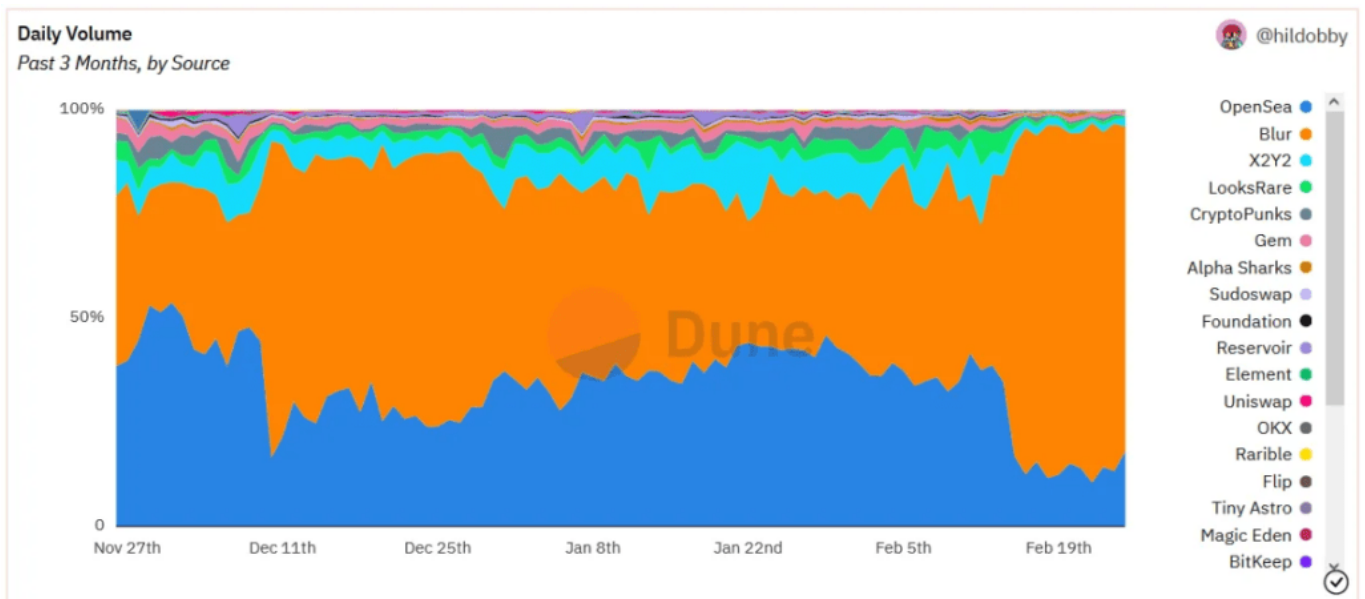
[iOS 버전 다운로드](#)

[신규 유저 한정 이벤트\(입금 및 거래 시 10,055USDT 보상\) <<<<](#)

블러는 어떻게 ‘오픈씨’ 아성 위협했나?

지난 달 23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블러가 2월 들어 오픈씨의 거래량을 넘어서면서](#) NFT 마켓 시장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오픈씨가 지배하던 NFT 마켓 시장에 균열을 낸 것. 블러는 지난 15일 처음으로 오픈씨의 일일 거래량을 추월했다. 블러 거래량은 6602 이더리움, 오픈씨 거래량은 5649 이더리움을 기록했다.

블러가 시장에 출시된 건 지난해 10월이다. 고작 네 달 만에 세계 1위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런 성과를 거두게 한 요인으로는 NFT 차익 거래에 특화된 사용자인터페이스(UI), 플랫폼 충성도 보상으로 지급한 자체 토큰 ‘블러(BLUR)’ 두 가지가 꼽힌다.

NFT 업계 관계자는 블러가 최근 가격 제안 주기를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였다”며 “가격 제안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면서 거래량 폭증이 야기됐다”고 말했다.

거래량 증폭에 보다 주효한 요인은 자체 토큰이었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는 둔 [대시](#)보드를 인용, 지난 14일 자체 토큰 ‘블러(BLUR)’ 무상 지급(에어드랍)을 실시하면서 블러 거래량이 네 배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토큰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블러 이용자들이 [사전거래를 함에 따라 거래량이 급증](#)하는 효과를 봤다.

또한 규제 단속으로 인해 벤처캐피털(VC)가 지원하는 오픈씨가 토큰을 출시하지 못하는 경우 블러는 경쟁사에 대항하여 힘을 보여주며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픈씨 vs 블러, 크리에이터 로열티 전쟁 시작

블러는 오픈씨가 지배하는 공간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가 NFT 시장에서 가격에 가장 민감한 사용자들을 붙잡는 것임을 알게 된 것 같다. 마찰이 없는 선택적 로열티, 제로 거래 수수료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소수의 투기적 NFT 거래자를 우선 대상으로 가져갔다.

블러, 오픈씨에 '도전' 발기

블러는 NFT 창작자들에게 오픈씨에서의 NFT 판매를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로열티를 받으려면 오픈씨를 차단하는 것이다. 블러는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창작자에게는 최소 0.5% 이상의 수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22일 블러를 제외한 NFT 마켓에서 리스팅을 제거할 시 향후 더 큰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른 NFT 마켓 이용자를 뺏어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물론 블러가 이런 가격 전략을 채택한 최초의 회사는 아니다. 앞서 수도스왑(Sudoswap)과 매직 에덴(Magic Eden)도 일정한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블러는 로열티 제로 경쟁을 가속화했다.

대부분의 NFT 로열티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에 불과하다. NFT 창작자는 자신의 디지털 아트를 지키기 위한 한계 비용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의 많은 크리에이터는 영구 로열티를 초기 비용을 상쇄하는 방법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방식은 NFT 수집가의 보상과도 일치한다.

NFT 로열티에 대한 시장 표준은 1/1 NFT 아트 부문에서 비롯됐다. 당시 디젠(Degen) 거래는 비교적 드물었고 수집가들은 오픈씨를 비롯한 제3시장에서 시행하는 창작자의 로열티 비율을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다.

오픈씨의 초기 포지셔닝은 창작자 편에 서서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거래자가 오픈씨에만 NFT를 출시하도록 유도했다.

오픈씨는 작년 11월 8일 크리에이터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크리에이터가 오픈씨 또는 블러 어디에서 로열티를 받을지 선택하도록 했다. 오픈씨는 창작자가 로열티가 없는 플랫폼(Looksrare, X2Y2, Sudoswap 포함)이 스마트 계약 코드 내에서 NFT를 거래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자사의 창작자 로열티를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동시에 블러는 오픈씨의 봉쇄를 피할 방법도 찾았다. 오픈씨의 씨포트(Seaport) 프로토콜을 영리하게 활용해 여기에 자신의 시장을 구축한 것이다. 씨포트는 누구나 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오픈씨의 무허가 탈중앙화 분산 프로토콜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블러는 “우리를 막으려면 자체 씨포트 프로토콜부터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픈씨, 블러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

이에 오픈씨가 ‘추격자’ 블러를 겨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15일 블러에게 처음으로 일일 거래량을 추월당하자 일시적으로 수수료 제로를 일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NFT의 창작자 수수료를 0.5%로 변경했다. 그간 거래 수수료 2.5%, 창작자 수수료 7.5%를 받아오던 오픈씨가 파격적인으로 수수료를 깎았다.

그동안 오픈씨는 업계 1위 NFT 거래소로 군림해 왔다. 한때 2위 거래소 X2Y2, 룩스레이어가 오픈씨 거래량을 일시적으로 능가했을 때도 수수료를 줄인 적이 없다. 그러나 블러가 오픈씨 거래량을 약 2배 차이로 압도하자 시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로 로열티, 크리에이터 수익 옵션 수정, 동일 정책을 유지하는

거래소 차단 해제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오픈씨는 한시적으로 크리에이터 로열티를 0%로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고, 온체인에 적용되지 않는 NFT 컬렉션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로열티를 최소 0.5%를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오픈씨는 NFT 투자자들의 거래 수수료에서 징수해 크리에이터에게 로열티를 배분하는데, 현재 NFT 거래소 거래량의 80%는 블러와 같은 크리에이터 로열티 제로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오픈씨 역시 일시적으로 크리에이터 로열티 제로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BTCC 가입하고 보너스 받으세요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신규 유저 한정 이벤트\(입금 및 거래 시 10,055USDT 보상\) <<<<](#)

블러의 독특한 마케팅: 유동성 채굴

블러(Blur)가 취한 시장 전략의 두 번째 단계는 에어드롭에서 유동성을 채굴하는 것이다.

그러나 블러의 유동성 채굴 전략이 좀 다른 점은 에어드랍 게임과 실제 가치 창출에 따른 인센티브 방식을 결합했다는 것이다.

블러의 에어드랍은 '로열티 포인트' 시스템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시장에서 입찰한 횟수에 따라 포인트로 보상한다.

사용자의 입찰가가 높을수록 해당 입찰가가 NFT 시리즈의 가격 하한선에 가까워지고 사용자가 얻는 로열티 포인트 역시 많아지므로 최종 에어드랍 수량도 많이진다.

BLUR SEASON 2

Season 1 was just the beginning. There's a lot more coming. Season 2 rewards have not been revealed yet, but for the next 30 days, all bidding and listing points have been doubled. All bidding and listing points are doubled until 04/01.

BID POINTS ⓘ

0.0000

LISTING POINTS ⓘ

???

LISTING LOYALTY ⓘ

0%

[View collections](#)

ROLLING 24H LEADERBOARD

Get to the top of the leaderboard to boost your points. Bids on top collections closer to the floor get more rewards. Updates every 5 min.

POSITION	NAME	BOOST	LOYALTY	24H POINTS	TOTAL POINTS
UNRANKED	YOU	-	0	0	0
1	CBB0FE	2.5X	100%	4,506	42,807
2	MACHIBIGBROTHER.ETH	2.5X	100%	4,188	54,781
3	4D417D	2.5X	100%	3,949	23,844
4	9A68CB	2.5X	100%	3,189	30,126
5	9C8152	2.5X	100%	3,185	37,437
6	36355C	2.5X	100%	2,795	12,692
7	8BC110	2.5X	100%	2,727	46,047
8	5E1416	2.5X	100%	2,241	34,889
9	B70C67	2.5X	100%	1,624	5,455
10	588441	2.5X	100%	1,454	4,431
11	C2B46C	2X	100%	1,365	9,244

이는 고래들이 실질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수 백만 달러의 입찰을 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블러 플랫폼에서 유동성을 창출한다.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블러의 시장에 영향을 미쳐 블러를 NFT 거래의 최종 목적지로 만들었다.

과거 X2Y2와 룩스레이 등의 오픈씨 경쟁자들은 에어드롭 자격과 제품 사용을 연동시켰다. 이는 에어드롭 사냥꾼들에게 위험성이 없는 위시 트레이딩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의 거래량은 급증했지만 이들이 더 좋은 거래소가 되도록 하지는 못했다.

[BTCC 가입하고 보너스 받으세요](#)

“거품 걷힌 NFT 시장 퇴보할 수도” 우려

오픈씨와 블러의 이런 경쟁 양상이 NFT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국내 NFT 시장은 투기 광풍이 사라지고, 실용적인 가치 제공에 초점을 맞춘 컬렉션들이 차츰 등장하고 있었다. 이런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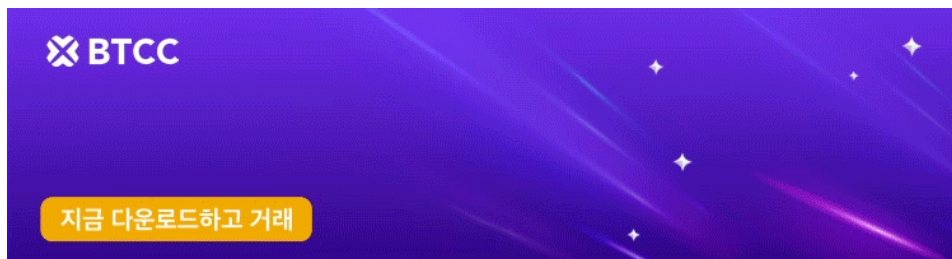
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

NFT 업계 관계자는 “블러 이용자들은 NFT를 보고 구매한다기보다는 거래량을 늘려 토큰 보상을 많이 받으려는 경우가 많다”며 “1위를 다투는 오픈씨와 블러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NFT 창작자에게는 정책이 불리하게 조정됐는데, 오픈씨는 원래 창작자 권리를 보장하는 성향이 강했으나 그런 성향이 급변했다”고 지적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NFT가 가상자산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용성이 확장돼야 한다”며 “사용자에게 편의성과 가치를 제공하는 NFT가 자산으로 인식되고, 그런 상품에 투자가 이뤄질 텐데, 블러의 열풍은 현재로서는 단순히 NFT 소유의 개념에서 그쳐서 다소 아쉽다”고 분석했다.

수익이 감소하더라도 NFT 창작자들이 블러를 외면하긴 어렵다. 블러에서 야기되는 NFT 시세 상승이 하나의 이유다. 또 블러가 주요한 입지를 확보한 만큼 블러에서 NFT가 홍보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BTCC 가입하고 보너스 받으세요](#)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신규 유저 한정 이벤트\(입금 및 거래 시 10,055USDT 보상\) <<<<](#)

국내 크리에이터 로열티 정책은?

이런 가운데 국내 NFT 거래소들은 크리에이터 로열티 지급 정책에 대한 큰 변화 없이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업비트NFT 거래소 관계자는 “두나무는 NFT 산업의 선순환을 위해 업비트NFT에서 거래되는 NFT 거래 수수료 일부를 창작자에게 분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팔라는 크리에이터가 NFT 입점 시 로열티를 0~10% 사이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로열티 사용처에 대해 해당 팀이 직접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단, 현재 팔라 거래 수수료는 0%인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위주로 프로젝트가 발표된 국내와 달리 해외는 개인 창작자들이 많은데, 이들이 구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NFT의 시세 상승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픈씨와 블러의 경쟁이 아직까지 국내 NFT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진단됐다. 국내 업계 관계자는 “블러가 아직 클레이튼을 지원하지 않기도 하고, NFT 시세가 널뛰기하는 점이 웹3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라고 짚었다.

[BTCC 가입하고 보너스 받으세요](#)

블러, 오픈씨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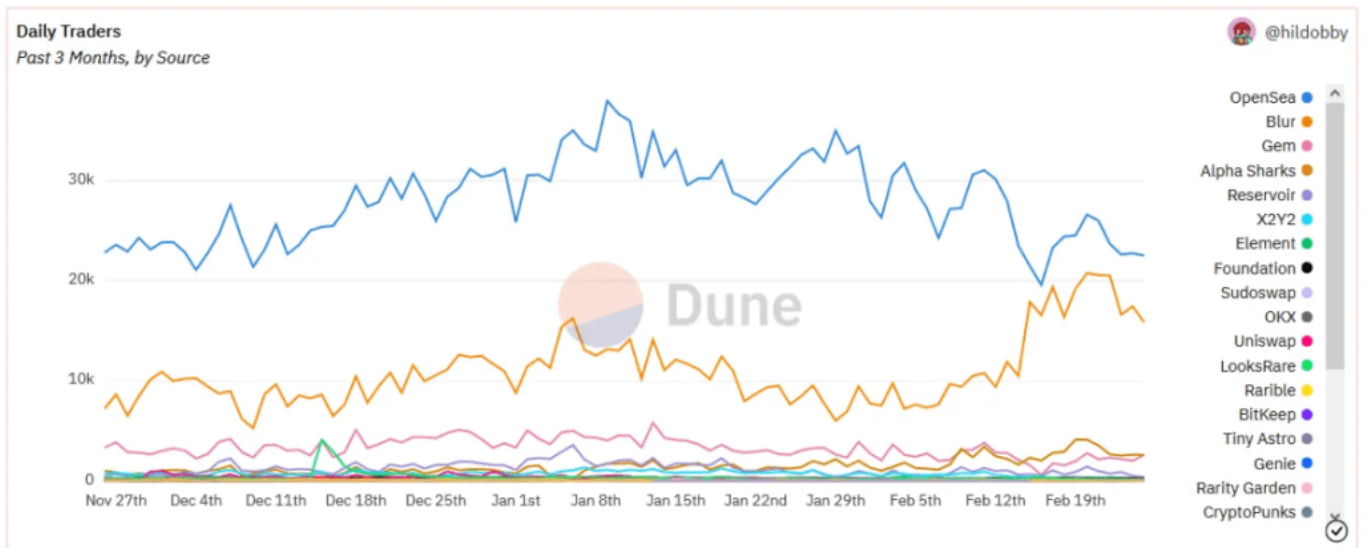
한 마디로 정리하면 블러의 로열티/거래 수수료 축소와 정교하게 설계된 유동성 채굴 계획은 오픈씨에 대한 두 가지 공격 방향이었다. 오픈씨는 결국 지난 주 일시적으로 거래 수수료를 없앴지만 NFT 시장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블러의 유동성 인센티브 설계는 지금까지 성공했지만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블러 에어드랍 사냥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실제로 판매자가 수락하지 않고도 입찰가를 제공하고 블러 충성도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NFT 시장이 침체에 처하면 에어드랍 사냥꾼은 자금조달의 리스크 > 블러 충성도 점수의 수익을 인식하게 되면 일련의 입찰이 받아들여져 시장이 더욱 하락할 수 있다.

둘째, 블러의 활성 사용자 증가는 지속적으로 매우 비싼 당근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블러는 의도적으로 에어드랍을 '계절성' 마케팅 캠페인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 유동성 높이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블러 토큰(BLUR)도 하나의 밈 토큰에 지나치 않고 좋게 말하면 '거버넌스 효용을 가진 토큰' 정도로 치부할 수 있다.

끝으로 블러는 거래량 측면에서 오픈씨를 능가했지만 유기적 사용자 측면에서는 오픈씨가 여전히 주도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블러의 활동은 주로 소수의 부유한 에어드랍 사냥꾼이 지배하는 반면, 보다 폭넓은 보편적 시장은 오픈씨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신생 NFT 플랫폼인 블러가 오픈씨를 완전히 뒤집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NFT 시장의 격해진 경쟁 구도는 오픈씨에 투자한 벤처캐피털을 긴장시키고 있다. 벤처캐피털이 작년에 평가한 오픈씨의 평가 가치는 130억 달러를 넘는다.

그러나 블러가 이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다양한 선택, 인상적인 속도 및 원활한 사용자 경험은 블러가 발판을 마련하고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동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기동과 BLUR의 출시가 진정으로 오픈씨를 능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이것은 답은 1조 gwei인 질문이며 지금 당장의 간단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확실히 오픈씨가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져왔다는 곳에서 블러가 주도권을 잡으려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BTCC 가입하고 3,500USDT 받으세요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신규 유저 한정 이벤트\(입금 및 거래 시 10,055USDT 보상\) <<<<](#)

블러 인기에 BLUR 토큰 획득하는 방법

현재 블러의 인기가 여전히 매우 좋다. 블러 토큰을 얻기 위해 블러 에어드랍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거래소를 통해 BLUR 및 블러 선물계약을 직접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BLUR/USDT 무기한 선물](#)을 BTCC에서 최대 50배 레버리지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제품의 선물 사양입니다.

신규 상장 - 선물 사양

제품	거래시간	레버리지	최소 주문	강제 청산 비율
BLUR (Blur)	24/7	1 ~ 50배	100	30%

2011년 설립된 BTCC 거래소는 단 한차례도 해킹 피해 사례가 없는 강력한 보안을 자랑해 투자자가 보다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미국 금융감독국\(MSB\)](#) 및 [캐나다 금융감독국\(MSB\)](#), 리투아니아의 [암호화폐 라이선스](#)까지를 획득했습니다. 고객 자산관리에 측면은 BTCC는 [다중 서명 콜드 월렛](#)을 사용합니다. 모든 사용자의 자산은 다중 서명 콜드 월렛에 저장되어 제3자, 사이버 해커 또는 도둑의 무단 접근을 방지합니다. BTCC 거래소는 업계 최고의 자산관리로 믿음직한 거래소입니다.

BTCC 가입혜택

BTCC는 신규 유저들을 위해서 가입하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지금 가입하면 **30일** 이내에 입금액 대비 **최대 3,500USDT**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USDT**를 입금하시면 바로 **VIP 1**로 될 수 있습니다. **VIP**가 되면 거래 수수료 할인 또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정 인증 시에 최대 **10USDT**를 받으실 수 있고, 첫 거래를 인증하시면 **50USDT**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BTCC 가입하고 3,500USDT 받으세요

관련페이지:

[블러 NFT 거래, 약 7500억 '워시 트레이딩'...블러 상승세 지속할 수 있을까? - BTCC](#)

[블러, 3억 달러 추가 에어드랍\(시즌 2\) 준비중...참여 방법은? - BTCC](#)

[블러\(BLUR\) 코인이란? BLUR 어느 거래소에 상장되나? 향후 전망은? - BTCC](#)

[오픈씨, '수수료 제로' 정책 도입...블러와 경쟁 가열 - BTCC](#)

[블러"로열티 받기 위해선 오픈씨 차단해야"...BLUR 거래량 10억 달러 돌파 - BTCC](#)

[블러, BLUR 토큰 에어드랍 시작...NFT 일일 거래량은 오픈씨 첫 주월 - BTCC](#)

[블러, BLUR코인 에어드랍 진행 중...에어드롭에 참여하는 방법 소개 - BTCC](#)

[이더리움 기반 NFT 마켓 거래량, 절반 이상이 자전거래 - BTCC](#)

[오픈씨\(OpenSea\) 무엇인가요? 최대 NFT 거래소 소개드립니다. - BTCC](#)

[오픈씨\(OpenSea\)에서 NFT 구매하는 방법 | 초보자 가이드 - BTCC](#)

더 많은 내용은 [BTCC 뉴스](#) 및 [BTCC 아카데미](#)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BTCC 거래소

- 12년 보안 무사고
- 암호화폐 라이선스를 획득한 믿음직한 거래소
- 전세계 규제 준수
- 세계 최저 수수료 **(0.03%)**
- 최대 150배 레버리지 제공
- 선물 거래량 기준 세계 5위
- 무료 모의 거래 가능
- 풍부한 유동성 및 오더북
- 토큰화 주식 및 암호화폐 출시
- 원화입금 지원
- 24x7 시간 한국어 고객센터 제공
- 최신 시장 동향 및 투자 교육 제공
- PC/모바일 거래 가능
- 다양한 이벤트

BTCC 가입하고 3,500USDT 받으세요